



88060163

**KOREAN A1 – STANDARD LEVEL – PAPER 1**  
**CORÉEN A1 – NIVEAU MOYEN – ÉPREUVE 1**  
**COREANO A1 – NIVEL MEDIO – PRUEBA 1**

Monday 20 November 2006 (afternoon)

Lundi 20 novembre 2006 (après-midi)

Lunes 20 de noviembre de 2006 (tarde)

1 hour 30 minutes / 1 heure 30 minutes / 1 hora 30 minutos

---

**INSTRUCTIONS TO CANDIDATES**

-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.
-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. It is not compulsory for you to respond directly to the guiding questions provided. However, you may use them if you wish.

**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**

- N'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'y être autorisé(e).
- Rédigez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. Le commentaire ne doit pas nécessairement répondre aux questions d'orientation fournies. Vous pouvez toutefois les utiliser si vous le désirez.

**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**

-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.
-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. No es obligatorio responder directamente a las preguntas que se ofrecen a modo de guía. Sin embargo, puede usarlas si lo desea.

다음 중 하나를 골라 해설하십시오.

1. (a)

### 옥상의 민들레꽃

- 그때 엄마는 거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. 오래간만에 소식을 알게 된 친구로부터 온 전화인가 봅니다. 아이는 몇이나 되나 친구가 물어 본 모양입니다. 엄마는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습니다.
- "글쎄 셋이란다. 창피해 죽겠지 뭐니, 우리 동창이나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 아니면 둘이지 셋씩 낳은 사람은 하나도 없더구나. 창피해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단다. 어찌다
- 5 군더더기로 막내를 하나 더 낳아 가지고 이 고생인지, 막내만 아니면 내가 지금쯤 얼마나 홀가분하겠니? 막내만 아니면 내가 남부러울 게 뭐가 있니?"
- 그 때 나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. 나에겐 내 가족이 필요한데 내 가족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건 나에겐 건디기 어려운 슬픔이었습니다.
- 엄마는 늘 나를 막내, 우리 귀여운 막내 하면서 끼고 들었기 때문에 나는 한번도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
- 10 걸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. 그러나 엄마의 사랑은 거짓이었습니다. 나는 엄마를 진짜로 사랑했는데 엄마는 나를 거짓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.
- 나는 말없이 집을 나왔습니다. 계단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. 마침내 옥상까지 올랐습니다. 옥상에서 내려다보니까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습니다. 나는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. 확실히 그렇게
- 15 생각했습니다.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나를 없애져 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습니까.
- 나는 옥상에서 떨어지기 위해 밤이 되길 기다렸습니다. 낮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금방 보게 되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살려 놓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. 나는 정말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밤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.
- 밤을 기다리는 동안 춥지도 않았고 배고프지도 않았습니다.
- 20 아파트 광장에 차와 사람의 움직임이 몇자 둥근 달이 하늘 한가운데 와서 옥상을 대낮같이 비춰 주었습니다. 마치 세상에 달하고 나하고만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. 그 때 나는 민들레꽃을 보았습니다. 옥상은 시멘트로 뽀뽀하게 발라 놓아 흙이라곤 없습니다. 그런데도 한 송이의 민들레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. 봄에 엄마 아빠와 함께 야외로 소풍 가서 본 민들레꽃보다 훨씬 작아 꼭 내 양복의 단추만 했습니다. 그것은 틀림없는 민들레꽃이었습니다.
- 25 나는 하도 이상해서 톱니 같은 이파리를 들치고 밑동을 살펴보았습니다. 옥상의 시멘트 바닥이 조금 패인곳에 한 순갈도 안 되게 흙이 조금 모여 있었습니다. 그건 어찌면 흙이 아니라 먼지일지도 모릅니다. 하늘을 날던 먼지가 축축한 날, 몸이 무거워 옥상에 내려앉았다가 비를 맞고 떠내려가면서 움푹한 그 곳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. 그 먼지 중에 민들레 씨앗이 있었나 봅니다. 싹이 나고 잎이 돋고 꽃이 피게 하기에는 너무 적은 흙이어서 잎은 시들시들하고 꽃은 작은 단추만 했습니다. 그러나 흙을 찾아 공중을 날던 수많은
- 30 씨앗 중에서 그래도 뿌릴 내릴 수 있는 한줌의 흙을 만난게 고맙다는 듯이 꽃은 셋노랗게 피어서 달빛 속에서 곱게 웃고 있었습니다.
- 도시로 부는 바람을 탄 민들레 씨앗들은 모두 시멘트로 포장한 딱딱한 땅을 만나 싹 트지 못하고 죽어 버렸으련만 단 하나의 민들레 씨앗은 웅색하나마 흙을 만난 것입니다. 흙이랄 것도 없는 한 줌의 먼지에 허겁지겁 뿌리 내리고 눈물겹도록 노랗게 핀 민들레꽃을 보자 나는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.
- 35 살고 싶지 않아 하던 게 큰 잘못같이 생각되었습니다.
-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온 가족이 나를 찾아 헤매다 돌아와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. 엄마는 나를 껴안고 엉엉 울면서 말했습니다.
- "아무 일도 없었구나, 막내야. 만일 너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나도 살아 있지 않으려고 했다."
- 엄마는 내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 반가워서 말없이 집을 나간 잘못에 대해선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. 나
- 40 역시 엄마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.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안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. 그 일도 그렇게 끝났습니다.
-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사람은 어제 살고 싶지 않아지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.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없애져 줬으면 할 때 살고 싶지가 않아집니다. 돌아가신 할머니의 가족들도 말이나 눈치로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하고 바랐을 것이 틀림없습니다.
- 45 그리고 살고 싶지 않아 베란다나 옥상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막아 주는 게 쇠창살이 아니라 민들레꽃이라는 것도 틀림없습니다. 그것도 내가 겪어서 이미 알고 있는 일이니까요.
- 그러나 어른들은 끝내 나에게 그 말을 할 기회를 안 주었습니다.

박완서, '옥상의 민들레꽃'

- 이 소설의 소재는 무엇인가?
- 이 소설의 시점은 무엇인가?
- 이 소설에서 민들레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?
- 이 소설의 주제는 무엇인가?

1. (b)

자연

뉘라 알리  
어느 가지에서는 연신 피고  
어느 가지에서는 또한 지고들 하는  
움직일 줄 아는 내 마음 꽃나무는  
5 내 얼굴에 가지 벌은 채  
참말로 참말로  
사랑 때문에  
햇살 때문에  
못 이겨 그냥 그  
10 웃어진다 울어진다 하겠네.

박재삼 [춘향이 마음] 1962

- 제목과 시 본문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?
  - 이 시에서 사용된 리듬은 무엇인가?
  - 이 시에서 사용된 반복법의 효과는 무엇인가?
  -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인가?
-